



## “한국은 東南亞만도 못한 기록후진국”

"외국인들이 '국제 협상장에서 서류 보따리를 들고 미소짓는 동양인은 일본 관리, 빈손으로 인상 쓰는 사람은 한국 관리'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는 말에 화가 났죠. 기록 없이는 국익(國益)을 지킬 수도 과거의 잘못을 밝힐 수도 없어요. 기록이 곧 국력입니다" 국내 하나뿐인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원장에 이 학교 무역학과 박희종(朴熙宗·51) 교수가 취임했다.

"경제학자가 왜 '기록학'에 뛰어들었냐"고 묻자, "99년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지켜보다 분통이 터졌다"는 대답이 나왔다.

당시 학교 기획실장을 맡고 있던 박 원장은 학교측에 "기록관리학·문화재보존처리학 큐레이터학과로 구성된 대학원을 세우자"고 건의했다. 기록 작성·관리·열람·전시를 연구하고 전문적인 '기록관(archivist)'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다.

"혈세 수천억을 날린 한보사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 한마디에 흐지부지되고 불과 4~5년 전의 국세청 자료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기록 후진국'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동남아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옛날엔 달랐다. 통일신라 때 벌써 최고통치자 곁에 '사관'을 배치했다. 조선시대엔 대궐에 근무하는 사관은 8명이 24시간 교대로 왕의 곁을 지켰다. 사관이 못 가는 곳은 왕이 여인을 맞는 침소뿐. 임명제가 아니라 사관들이 성균관 유생 중 적임자를 추천하면 왕이 추진했다. 당대의 사초(史草) 열람은 왕도 못했다. 기록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중국의 '명실록' '청실록'은 물론 서구를 능가한다.

박 원장은 "일제시대 때 재산권·인사 관련서류만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일본식 '중별관리제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기록시스템이 망가졌다"고 했다. 2차대전 후 일본은 미국식 기록보존체계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일본식을 답습했다. 박 원장은 "미국은 대통령이 백악관 1층에 있으면 공인, 2층에 있으면 개인으로 구분하고 재임 중 메모까지 '국정기록'으로 관리한다"며 "우리 장관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은 민감한 현안이 걸린 회의일수록 회의록 없이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金秀蕙 기자

/조선일보 2001년4월25일자

**기록과학대학원** : 공공기관·기업·대학의 기록관리전문요원과 문화재 및 미술관 관리·경영분야의 고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명지대학교가 2000년3월 신설한 특성화 대학원.

기록관리학과·문화재보존관리학과·큐레이터학과가 있고 박희종 교수는 2001년2월 제2대 원장으로 취임. 국내 유일 '기록과학대학원' 원장 취임 박희종 명지대 교수 -

## 제188차 이사회 소식

4월30일 오후 15시30분에 제188차 이사회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총무이사로부터 ▲법인등기완료(01.4.23) ▲협회소식지 제9호 발간·배포(01.3.28) ▲문화관광부 예산확정(01.3.31) 등의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이어 2건의 부의안건(인터스테노총회 참가의 건, 협회 속기업무능력인증시험에 관한 건) 심의에 들어갔다. 가항인 인터스테노 총회 참가의 건에 관해서는 이승철 국제이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나서 토의에 들어갔는데 참가인원 및 구체적인 인선에 대하여는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어서 나항인 협회 속기업무능력인증시험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임재룡 이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장시간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자격심사위와 연구위, 회원부에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추후에 다시 이사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기타사항으로 제9회 속기학술세미나의 계획안에 대하여 이경식 사업이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홍순관 이사로부터 세미나 일정 중에 치러지는 속기경기대회를 실무와 연계시킬 것과 참여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세미나 개최일시는 2001.6.9(토) - 2001.6.10(일)로 하며 장소 및 자세한 세부일정은 이사장과 사업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17시16분에 산회하였다.

## 제43차 인터스테노 회의

- ◇ 기간 ; 2001년7월28일 - 8월2일
- ◇ 장소 ; 독일 하노버
- ◇ 소요예산 ; 1,500만원
- ◇ 참가인원 ; 4인<홍순관이사·김란희홍보이사·한기수회원·이기옥(경남도의회)회원>

### ◇ 주요 회의일정

- 7/28.29 - 중앙위원회 1차 회의
- 7/30 - 속기경기대회 참관
- 7/31 - 인터스테노 총회 개막
- 8/01 - ①국제사무행정포럼(주제 - 세계화와 대중매체)  
②기타 - 음성인식프로그램과 언어번역프로그램에 대한 시연회
- 8/02 - ①각국 대표 주제발표
  - 일본속기문자 소개와 일본속기의 현주소(수필속기, 기계속기)
  -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의 속기를 활용한 강의와 방송프로그램의 subheading
  - 타자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교수법
  - 오스트리아에서의 워드프로세싱 발전
  - 자동음성인식프로그램장치

---

## 인터스테노(INTERSTENO)에 대해서....

인터스테노 국제연맹은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말을 문서화하는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국제적인 모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가입했고 현재 회원국은 25개국이며 총회는 2 내지 3년마다 1회, 중앙위원회는 매년 개최를 원칙으로 회원국 중 하나에서 열립니다. 인터스테노는 유네스코 산하기구입니다.

### 협 회 소 식

#### 지방의회 속기직원 연수

국회사무처에서는 2001년 5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3일간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속기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속기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전국 52개 의회에서 81명의 속기사들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지방의회의 내실화를 위한 의회 운영능력 제고와 의회운영 경험의 공유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배양 그리고 지방의회간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 증진을 목표로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 목 및 강 사 진

- 회의록 전산화(간찬기 - 국회 의사국 속기1과 속기주사)
- 의사진행실무(기노진 - 국회 의사국 의사과장)
- 회의록 작성 및 편집실무(박정호 - 국회 의사국 속기1과 서기관)
- 회의록 관련법규 및 사례(손재옥 - 국회 의사국 속기1과 속기사무관)
- 음성인식과 회의록 작성(홍순관 - 국회 의사국 속기1과장)
- 의안처리실무(박출해 - 국회 의사국 의안과 서기관)
- 회의록 바로쓰기 사례(김선옥 - 국회 의사국 속기2과 서기관)

이밖에 국회사무처 소속 협회 임원들과 연수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지방의회 속기직원들로부터 속기사법 제정, 회원들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회비납부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서로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회 주요시설 참관 등의 일정으로 3일간의 연수과정을 마무리지었다.

## 협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진행 중

작년 1월 회원들간의 정보공유와 상호유대 강화를 위해 개설된 협회 홈페이지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올 하반기 초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체적인 메인 디자인을 개편하여 아이콘과 각종 메뉴를 희망과 발전을 의미하는 녹색계열로 바꾸는 한편, 보다 많은 읽을 거리와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소식, 회원논단, 인터뷰 등 회원들의 공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인화면에 포토갤러리(가칭) 코너를 현재보다 한층 부각시켜 하나의 독립적인 창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이 곳은 협회와 회원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협회의 각종 행사관련 사진이나 동영상도 다양하게 실릴 예정이다. 협회에서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회원 여러분에게 한층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들의 공간인 홈페이지가 좀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 우리 모두 하루 한번 협회 홈페이지 방문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

###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세요.

앞으로 회원님들의 이메일 주소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협회 공지사항이나 새소식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속기계나 소식지의 웹진화를 위해서도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확보가 필요합니다.

보내실 주소는 [sunny@baubau.com](mailto:sunny@baubau.com)(문선희)

[duckl@assembly.go.kr](mailto:duckl@assembly.go.kr)(서현숙)

## 회 원 동 정

### 우리 회장님은요...

- IMEMO(세계경제정치연구소) 초청으로 러시아 방문(01.5.9~01.5.19)
- 국회 월드컵지원특위 위원으로서 월드컵 홍보(영국 런던을 비롯 유럽 각국 방문)(01.5.19~01.5.25)

### ☆승진 · 축하합니다.

- 김형곤 회원(양성소2기)/코스닥 관리부장→증권업협회 상무(01.4)
- 이재현 회원(산업자원부)/주사→사무관(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경쟁기획과)(00.12)

### ☆유직 · 힘내세요.

- 조미경 회원(국회사무처)/(01.5.14~01.8.31)

·차공순 회원(국회사무처)/(01.5.10~01.11.9)

☆**교육/연수** ·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 속기직원 교육(국회헌정기념관)/각 지방의 지방의회에서 80명의 회원들이 참여협회

☆**발전기금** · 감사합니다.

·고태중·김기영·박광택·정명길·최황수 부회장님께서 각각 30만원씩의 협회발전기금을 내주셨습니다.

·권영찬·김란희·최예숙 회원께서 각각 30만원씩의 협회발전기금을 내주셨습니다.

·곽계안 회원께서 평생회원비 20만원을 내주셨습니다.

★ **원로회원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임 신희동 이사장 주최로 2001년 4월27일 저녁 7시에 여의도의 신동양에서 상견례를 겸한 원로회원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총 열세 분의 회원님이 참석하여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였고 앞으로 자주 만나서 좋은 의견을 나누자는 제의에 공감하면서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졌습니다.

**<회비납입 안내>**

·회 비 : 1년분 20,000원

·보낼곳 : 농협 온라인 036-01-087944 정 숙(협회 재정부장)앞

※ 회비납부가 1년 이상 연체될 경우 회원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어능력인증시험(KET; Korean Efficiency Test)이란?**

21세기에 맞는 올바른 국어생활 정립과 민족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된 언어 및 문자규범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종합적인 우리말 사용능력 평가제도로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종합적인 우리말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지난 5월20일 재단법인 '언어문화연구원'이 주관하고 (주)J에듀라인과 (주)이텍스트코리아의 공동시행으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춘천, 제주 등 7개 도시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시험은 수준에 따라 초등부·중등부·일반부 등 3단계로 나누어지고 문제는행방식으로 출제되는데 평가영역은 듣기(30문항), 어휘력(15문항), 맞춤법·표준발음·문법 등 어문규정(15문항), 읽기(40문항), 쓰기(20문항)로 전체 120문항이 출제되고 200점을 만점으로 해 1급(200~185점)부터 5급(136~121점)까지 부여한다고 합니다.

'국어능력인증시험'의 인증서는 대입 전형자료 혹은 대입 전형자료로 인정되는 경시대회 본선 참가자격, 언론사 및 기업체 입사지원 자격, 자신의 국어사용 능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